# 미래비전 일구는데 최선 다할 터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인쇄종합정보 매거진을 표방하고 창간된 우리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어느덧 창간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쇄인을 비롯한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쇄업계 정론지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인쇄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쇄의 미래비전을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 인쇄업계는 극심한 경기불황속에서 지난 해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기름 값의 가파른 상승 여파로 인쇄용지와 인쇄기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인쇄기기를 구입한 업체들은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97년 IMF사태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솔그룹이 최근 한 인쇄업체를 인수하여 인쇄업에 진출하고, 한 중앙언론사가 상업인쇄기를 구입하여 상업인쇄물을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이처럼 암담하지만 우리 인쇄인들은 선조들께서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외침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의지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 초에 발효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과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프린팅코리아를 통해 업계의 위상제고와 인쇄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발효에 따라 최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나라 인쇄역사 이래 처음으로 출판인쇄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협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인쇄업계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 구성된 비전기획위원회와 홍보미디어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연구하는 한편 오는 9월에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와 연계하여 인협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인쇄 및 도서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참가하여 인쇄물 수출증대 사업을 전개하고, 청주시와 함께 '직지' 및 인쇄의 국내 순회전과 세계인쇄회의 및 한중 · 한일 국제교류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프린팅코리아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업계의 화합과 인쇄문화의 미래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지 발행인〉**

# 업계 권익보호 · 화합단결에 만전

**이충원** 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쇄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여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쇄업계의 정론지로 자리매김 하는데 애써 오신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에게 전국의 인쇄인을 대표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업계는 진퇴양난의 위기국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인쇄기자재 가격, 경기불황에서 오는 인쇄물량 감소, 자금난 등으로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는 건실한 재정을 가진 일부 중견업체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체는 경쟁상대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는 하나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영세 인쇄기업들은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기업인 한솔그룹이 패키징인쇄물의 수요창출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인쇄업에 진출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가 한솔제지의 종이를 사용하며 한솔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 도산의 위기로 몰아넣는 한솔그룹의 행태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행위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솔그룹이 인쇄업 진출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린팅코리아에서도 우리 업계의 생존권 수호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신속한 보도는 물론 여론을 수렴하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프린팅코리아 애독자 여러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희망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지면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우리 업계의 의견과 애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쇄단체와 조합원들이 합심하여 마련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십분 활용하여 인쇄문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업계를 선도하는데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프린팅코리아가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업계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업계의 든든한 가교역할 기대

조 정 석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2002년 창간된 후 지난 6년간 인쇄업계의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온 '프린팅코리아' 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인쇄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패기 있는 열정과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린팅코리아가' 가 인쇄업계의 전문매체로서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오신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프린팅코리아' 가 더욱더 새로운 사고와 가치로 정론을 펼쳐 사명을 다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인쇄업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 경쟁이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 전반에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린팅코리아가 인쇄문화산업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체적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업계가 '프린팅코리아' 를 통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약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인쇄시장의 변화 속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과 참신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뉴스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글로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필요로 함에 따라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계의 정론지로서 '프린팅코리아' 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생생하고 진솔한 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우리 업계 공동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은 언론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아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선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목소리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과 함께 발전, 성장해 나가는 인쇄전문지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프린팅코리아'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업계간 유대강화 힘써 주길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인쇄 · 출판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인쇄산업은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제조업이 아닌 출판산업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문화산업으로 지식정보 콘텐츠 생산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출판 및 인쇄 환경은 개인화와 다품종 소량 생산, 유비쿼터스와의 접목 등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해 초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토대로 한 체질강화와 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월간 프린팅코리아와 같은 전문 언론지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간 6주년을 맞은 프린팅코리아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선진 인쇄기술과 정보를 적극 알리고 문화로서의 인쇄산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등 인쇄산업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더 크게 자리매김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쇄산업의 부흥과 인쇄 · 출판 업계의 교류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프린팅 코리아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프린팅코리아가 항상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열어가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 인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노영현** 한국잡지협회 회장

인쇄문화산업전문지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는 그간 인쇄문화산업 종합정보지로서 변화가 잦은 인쇄산업의 현주소를 충실히 보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일찍이 인류문명을 주도해 온 활자문화는 현존하는 모든 매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와 방송, 출판 등 생활 속에서 영위하는 모든 매체의 시작 역시 문자에 있었습니다. 기록과 보존의 의미를 지닌 인쇄산업은 21세기 정보화 기술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쇄용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쇄인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자는 '지각 변동'이라 표현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상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럴수록 각종 기술에 대한 연구와 동향 파악으로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산업에 있어 공통진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인쇄산업전문지 역시 기존의 인쇄산업 정보를 포함하면서, IT와 통신 등 타 매체와의 접목을 통해 콘텐츠의 영역을 넓혀가며 업계를 선도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창간이념처럼 꼭 필요한 정보, 깊이 있는 산업소식을 담은 인쇄산업계 전문지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프린팅 코리아가 변화와 발전이 반복되는 인쇄산업 시장 속에서 인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잡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쇄산업의 비전 제시에 최선을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변함없이 인쇄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프린팅코리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인쇄산업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도 그동안 프린팅코리아가 보여주었던 노력의 결과물들은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드루파2008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인쇄산업은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주요 핵심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적용된 갖가지 신규 첨단 산업이 봇물을 이루며, 앞 다퉈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쇄가 고전적인 가치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창조해 내고 있고, 인쇄산업 역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인쇄산업은 아직도 '고전적 가치'의 인쇄산업에 머물러 있는 인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조금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는 업계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 인쇄산업의 디지털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인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쇄 및 관련 산업인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프린팅코리아도 인쇄업계의 선도 매체로서,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쇄산업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인쇄산업의 변화에 초석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 인쇄문화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앞장을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인쇄업계 언론매체의 리더로써 인쇄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날로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보다 값지고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과 참신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정보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시장은 기업마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필요로 함에 따라 매체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정론지로서의 프린팅코리아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쇄연구소는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이란 대의를 위해 본연의 기능인 조사, 연구,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현안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미래 세계시장 석권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서 참여하는 2차년도 RIS사업 수행을 통해 인쇄기업 발전지원 및 인력양성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인쇄 업체 및 단체, 언론매체 등의 제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며 더욱 협력하여 우리업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목소리로 우리 인쇄문화산업과 함께 발전, 성장해나가는 프린팅전문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래의 인쇄인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금창연 출판문화학회 회장 ·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

인쇄 산업은 기록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문화 산업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과 정보 콘텐츠를 출판 산업과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출판과 인쇄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리와 가공이 되어 어떤 물성에 전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판이 없으면 인쇄가 없고 인쇄가 없으면 출판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속으로 발달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산업으로 인해 활자를 통한 오프라인 미디어 산업은 사람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업체 간의 과당 경쟁, 불법 복제, 혼란한 유통 질서 등은 인쇄인들의 마음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프린팅코리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른 잡지와 차별화된 시각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원 만을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쇄를 사랑하는 다양한 문화인들을 참여시켜 미래의 인쇄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잡지는 콜라가 아닙니다. 콜라는 언제나 같은 용기에 같은 맛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잡지는 다릅니다. 매 호마다 표지도 새것, 내용도 새것이어야 합니다. 월호만 가리면 1년 전의 표지인지 몇 개월 전의 표지인지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잡지가 아닙니다. 매월 신문 가판대에서 2백만 부 이상 판매되고 있는 잡지 코스모폴리탄의 편집장 케이트 화이트(Kate White)는 '아주 매력적이고 맛깔스러워 핥아먹어도 될 것 같은 표지'가 훌륭한 표지라고 했습니다. 프린팅코리아 창간 6주년을 기뻐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 창간 7주년 때는 표지에서부터 내용이 더욱 변화된 프린팅코리아를 기대합니다.

# 지식산업 중심역할 수행해 주길

강규진 제주인쇄조합 이사장

프린팅코리아가 창간 6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린팅코리아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인쇄업계의 정보지로 또 인쇄인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저는 인류 문명 진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매체가 바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도 '근대 지성의 확산'도 바로 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책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인간은 책을 통해 더 큰 지식을 축적해 왔고,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 인쇄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인쇄요금은 10여년 간 그대로인데 반해 재료비와 인건비는 200%이상 인상되어 이것이 곧바로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종이책 보다는 다른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책보다는 영상물 같은 다양한 기록매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책은 지식과 정보를 담는 1차 매체로서 앞으로도 지식산업의 중심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프린팅코리아가 인쇄문화를 선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 다해주길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인쇄문화산업 종합 전문지로서 우리나라 인쇄업계 발전과 인쇄기술 향상에 애써온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대구경북인쇄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6주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 동안 프린팅코리아는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쇄관련 산업의 기술과 지식을 계승,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인쇄문화산업의 든든한 대변지로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업계를 선도해 왔다고 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쇄정보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해 나아간다는 소명의식으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지만 모두 다 굳건히 헤치면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프린팅코리아로 키워 오신 홍우동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해 인쇄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인쇄종주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고 문화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 인쇄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산업발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인쇄문화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지로서 더욱 성장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한번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쇄문화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이완표** 경기인쇄조합 이사장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한국의 인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인쇄인들의 정확한 최신 정보와 균형 있는 시각과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발행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인쇄문화 발전에 심혈을 기우려 오신 홍우동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인쇄업계는 국내외의 고유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부족과 비영리단체의 영역침식과 대기업의 인쇄업진출 확대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D업종으로 기능 인력난과 자금난 등으로 인쇄 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인쇄업계 스스로 회생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의 침체가 위험 수위를 지나 산업 전체에 위기가 있음을 직시하여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즉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쇄문화진흥법이나, 공공구매법 시행으로는 위기에 처해있는 인쇄 산업을 정상화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인쇄 종사인들이 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우리 인쇄 산업을 발전시키고 업체 개개인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 월간지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 제시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인쇄산업 발전 정책을 입안 시행시킬 수 있도록 인쇄업계를 대변하고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인쇄업계 촛불 역할 해 주길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 이사장

창간 6주년에 즈음하여 인쇄인의 한사람으로서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다들 몸소 느끼는 바와같이 대내외적인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 인쇄업계도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였습니다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쇄인들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지나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바닥을 고르고 급락한 저가 경쟁도 또한 대기업 규제완화로 인한 대기업의 인쇄업계 진출도 결국 우리 인쇄인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라면 내려놓는 것도 우리 인쇄인들일 것입니다.

전국의 인쇄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쇄라는 직업을 생업으로 하는 인쇄인입니다. 문자를 기록, 관리하기 시작한 인류문명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쇄의 품목은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그런데 각자 주력 생산품목이나 영업품목이 아니면 인쇄시장이 어떻게 흐려지든 별 관심이 없고 강건너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오늘날 인쇄업계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인쇄시장은 어느 것 하나 별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쇄라는 유기적관계의 동맹체입니다. 대기업마저 진출하는 마당에 이제라도 서로를 돌아보며 어깨를 걸고 함께해야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저가경쟁은 곧 자멸일 뿐 상생의 길은 아닙니다. 요즈음 한달 넘게 지속되는 촛불문화제를 접하며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80%이상 절대다수가 쇠고기 문제에 동의하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쇄업계에서의 위기의식은 언제 어느 때에 누구로 인하여 촛불이 되어 타오를까요. 그것은 대한인쇄문화협회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각 단체를 위시한 우리 인쇄인들 각자의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선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프린팅코리아와 같은 업계내의 언론매체라고 여겨집니다.

창간 6주년의 디딤돌이 업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업계의 아픔을 위무하며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지침을 끝없이 제시하길 바라며 프린팅코리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인쇄정론지로 발전하여 주시기를

**심응선** 인천인쇄조합 이사장

인쇄·출판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린팅코리아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래 오늘까지 인쇄·출판산업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인쇄·출판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린팅코리아는 기존의 인쇄정보산업과 IT산업을 결합하여 최신 인쇄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쇄업계에서 변화를 수용하며 최신 인쇄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쇄업계의 동정과 소식 등 인쇄정보를 제공하여 인쇄업계의 진단과 방향을 제시하여 인쇄업계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인쇄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특히 프린팅코리아는 인쇄문화산업진흥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도록 일조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새로운 인쇄정보기술을 인쇄업계에 제공하여 인쇄인의 권익보호와 인쇄문화를 창출하는 미디어로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프린팅코리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인쇄 · 출판계의 유익한 자산 되길

**김중영**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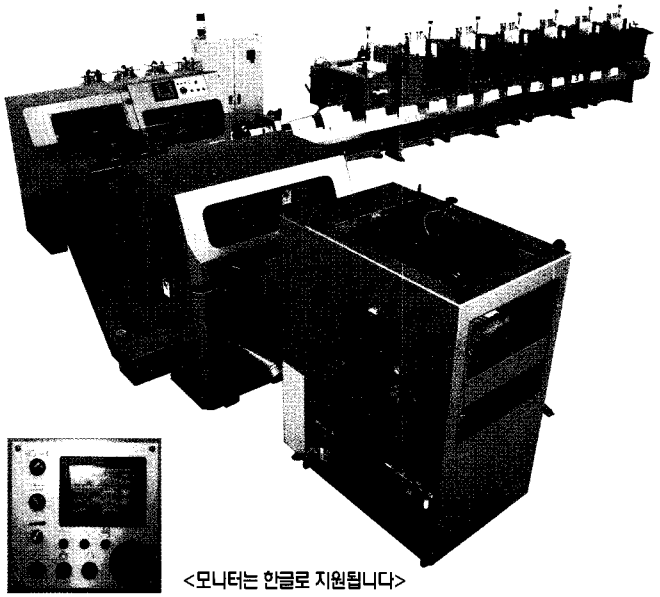
프린팅코리아 창간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한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좋은 기사와 정보로 인쇄업계를 비롯하여 출판계의 유익한 자산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출판과 인쇄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쇄의 발전이 출판의 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출판 산업의 발전은 인쇄산업 발전의 기초입니다. 지금 출판계가 어렵듯이 인쇄업계 또한 간단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출판과 인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인쇄업계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도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귀 단체 및 프린팅코리아에 대한 애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쇄업계와 출판계에 일원인 저로서는 두 업계가 공동발전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생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출판계를 위한 월간지 또는 격주간지 책자를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 있어 왔던 책자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출판인의 고민과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책자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린팅코리아의 지면을 통하거나 귀 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쇄업계와 출판계가 서로 상생하며, 계속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오사꼬의 최첨단 중철기를 만나보십시요





<모니터는 한글로 지원됩니다>

## Poder 전자동고속중철기

집중 컨트롤시스템

- Poder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반에서 집중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치는 오퍼레이터의 안전을 중시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조작반에 장착된 대화식패널에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패널에 현재의 가계속도 · 생산 수량을 표시합니다.
- 중철기의 접장 사이즈를 대화식 터치패널에 원터치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제본 위치를 설정합니다.
- 전자 캐리퍼는 컴퓨터 제어로 정확히 접장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 어긋남 · 처짐 검출장치는 접장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자동 메모리가 됩니다.
- 철박힌 숫자를 대화식 터치패널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스티쳐의 트러블을 감시합니다.
- 입력한 모든 정보는 한 화면에 호출해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 Poder의 최고 속도는 시간당 1만4천 사이클에 달합니다.

OSAKO 한국오사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2-20번지 동원빌딩 303호 전화_ (02)2658-1852, 1858 팩스_ (02)2658-1858